



오는 14일부터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주 개최지인 익산을 비롯한 전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열린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기원 기념행사.

전북의 전통 · 현재 · 미래 아우르는

'꿈의 걸음' 걷다

17일까지 4일간 익산종합운동장 등 6개시군 16개종목 16개 경기장서 개최
초 · 중 · 고교부로 나눠 3600여명 선수들 참여... 대회 최대규모로 치러져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오는 14일부터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주 개최지인 익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뛰는 팍팍을, 자신감의 꽃망울’ 슬로건으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4~17일 4일간 익산종합경기장 등 6개 시·군 16개 경기장에서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16개 종목에 3천 6백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그간 개최되었던 대회에 대비 최대규모로 개최된다.

개회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전북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꿈의 걸음’을 걸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악신동 정우연의 국악한마당과 메이킹 보이즈 브라스밴드의 식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되며, 식후행사로 연예인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출연가수로는 청하, 비와이가 출연하여 열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밖에도 VR스포츠안전·장애종목체험, 가훈붓글씨 써주기, 떡메치기와 버스킹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체전준비단은 익산종합운동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익산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업은 물론 개회식 준비와 경기장 점검, 수송, 숙박, 의료, 자원봉사자 운영 등 체전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실내체육관에 보건의료 인력 16명을 투입해 의료지원반, 임시약국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경찰 55명, 소방 36명을 투입하여 개회식 안전관리와 버스, 택시 등 총 268대의 차량을 지원하여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도내 숙박시설 현황 파악

및 숙박업소 환경과 시설을 점검·보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등 설치하여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체전의 꽃인 자원봉사자 총 1,200명을 모집하여 대회기간 동안 도내 경기장 곳곳에서 관람객 안내 및 편의제공 등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시군 주요 시가지, 경기장 주변에 가로기, 애드벌룬, 홍보탑 등을 설치하여 선수단 환영 및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하여 체전 기간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관광지 홍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민 체전준비단장은 “성공체전의 관건은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하고 14일 열리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과 체전 경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선수단 출사표... 육상·수영 '기대감'

174명 출전 역대 최대... 육상 박소영 메달 획득에 관심
작년 메달 획득했던 플로어볼·농구 등 단체종목 선전도

전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도내 6개 시·군 16개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팍팍을! 자신감의 꽃망울!’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김승환 교육감을 단장으로 174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전북 선수단은 13개 종목(육상, 수영,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농구, 배

구, 풋볼, 실내조정, 디스크골프, e스포츠, 플로어볼, 슐런)에 출전하며, 육상과 수영에서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육상필드의 박소영(정북맹아학교/고3)선수는 김승환 교육감을 단장으로 174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전북 선수단은 13개 종목(육상, 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작년에 메달을 획득했던 플로어볼(전주연합/은메달)과 농구팀(전주생명과학고/동메달)의 단체종목 선전도 기대된다.

전북장애인체육회 노경일 사무처장은 “대회출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우리 선수들과 각 학교 담당교사, 지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 도에 방문한 전국의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